



주 제:	“증거의 삶”	“연중 제 4 주일 “	2010 년 1 월 31 일
복음 묵상:	[루가 4,21-30]	[예레 1,4-5. 17-19]	[1 고린 12,31-3,13]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펼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명인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그분의 뜻과는 멀어져만 갑니다. 불륜, 더러움, 방탕, 적개심, 시기, 격분, 이기심,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동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보다는 지금의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듯 이 세상은 하느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느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구종 나충열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떠나시는 이레미시오 수녀님을 위하여
 그동안 본당을 위해 특별히 성가대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성서교육을 시키시며 애쓰신 수녀님이 임기를 마치고 **2월 4일(목)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새로운 부임지로 떠나시는 수녀님을 위하여 영육간에 축복이 듬뿍 내리시길 기도중에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시오.

축 입 단

- 신성원 루치아노 형제님이 주님의 부르심이 기쁘게 응답하시어 함께 전례의 도구로 함께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성가대 가족들은 많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주남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2 주간의 여정으로 떠났던 여행을 아무탈없이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현 지휘자 세실리아 자매님의 부군이신 김 베네딕도 형제님이 지난 월요일 수술을 마치고 Pleasanton 에 살고 있는 딸의 집으로 퇴원하시어 요양중에 있습니다.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중에 청해주시요. 항상 기도해 주신 성가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최남숙 멜라니아 자매님의 모친(권 베로니카님)의 간병차 서울에 가시어 15 일, 수술후 회복중에 계십니다. 멜라니아 자매님의 모친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탄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필경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 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네 고장인 여기에서도 해 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잘 들어라. 엘리야 시대에 삼 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시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 주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 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1분 명상

“넘어져 봐라 “ -- 전경일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중에서 -



넘어져 봐라,
산악인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정상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승진에서 미끄러지고, 실적을 하는 등 삶이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런 쓰라리고 아픈 경험은 어느 누구라도
한 번씩은 겪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져 봤으니 아는 게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재산이 된다.

-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넘어지는 순간 한번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을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다시없는 교훈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 마십시오,
엄청난 재산을 얻는 순간이니깐요,

◇생활 의 지혜◇

< 먹다 남긴 밥 보관 >

남은밥을 1 회분씩 나눠 랩이나 팩에 담아 밀폐한뒤 냉동시키면 밥맛이 변하지 않는다. 냉장실에 넣어두면 단백질이 파괴되면서맛을 잃는다. 먹을때는 정종을 조금 뿌린다음 전자레인지로 데워먹으면 맛이 원래 그대로다

< 양파껍질 벗길때 눈 안땀계 하려면 >

양파껍질을 물속에서 벗기면 양파의 아릴프로피온이라는 휘발성 최루물질이 물에 흡수된다. 또 양파를 차게한뒤 썰어도 눈물이 안나온다.